

유신 긴급조치 1·2·9호 위헌 현재 만장일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21일 유신제 재하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관련기사 3면>

현재는 이날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이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고 반대 견해는 없었다.

이에 따라 1974~1975년 발동된 긴급조치 1·2·9호는 거의 40년 만에 위헌 판결을 받았다.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 대해 여야는 이날 일제히 환영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조치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전남 일부 사회복지시설 복지에산 빼먹기 요지경 법인카드로 술값 530만원 결제 16명 유령채용 4억여원 빼돌려

감사원 기동점검 결과...전남도 관리·감독 뒷집

전남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수억원을 횡령해 유령주점을 드나드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도·감독 기관인 전남도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과 직인을 서류상 직원으로 채용한 뒤 월급을 가로채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감독이 허술해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되돌아 가고 있는 셈이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취약복지법인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서 지급된 예산을 횡령하거나 유령주점 술값으로 결제하는 등의 비리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무안군 A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은 딸의 대학 동기 등 16명이 마치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337회에 걸쳐 4억 5200만원을 횡령했다. 허위 종사자들

받는 차명계좌에 인건비를 입금한 뒤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쓴 것이다.

또 일을 하다 그만 뒤,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사무국장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2800만원을 횡령해 딸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 시설장은 횡령한 돈으로 4억여원의 부동산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 B사회복지시설 대표이사도 지난해 2월 서울 강남의 유령주점에서 술값으로 530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39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 대표이사는 법인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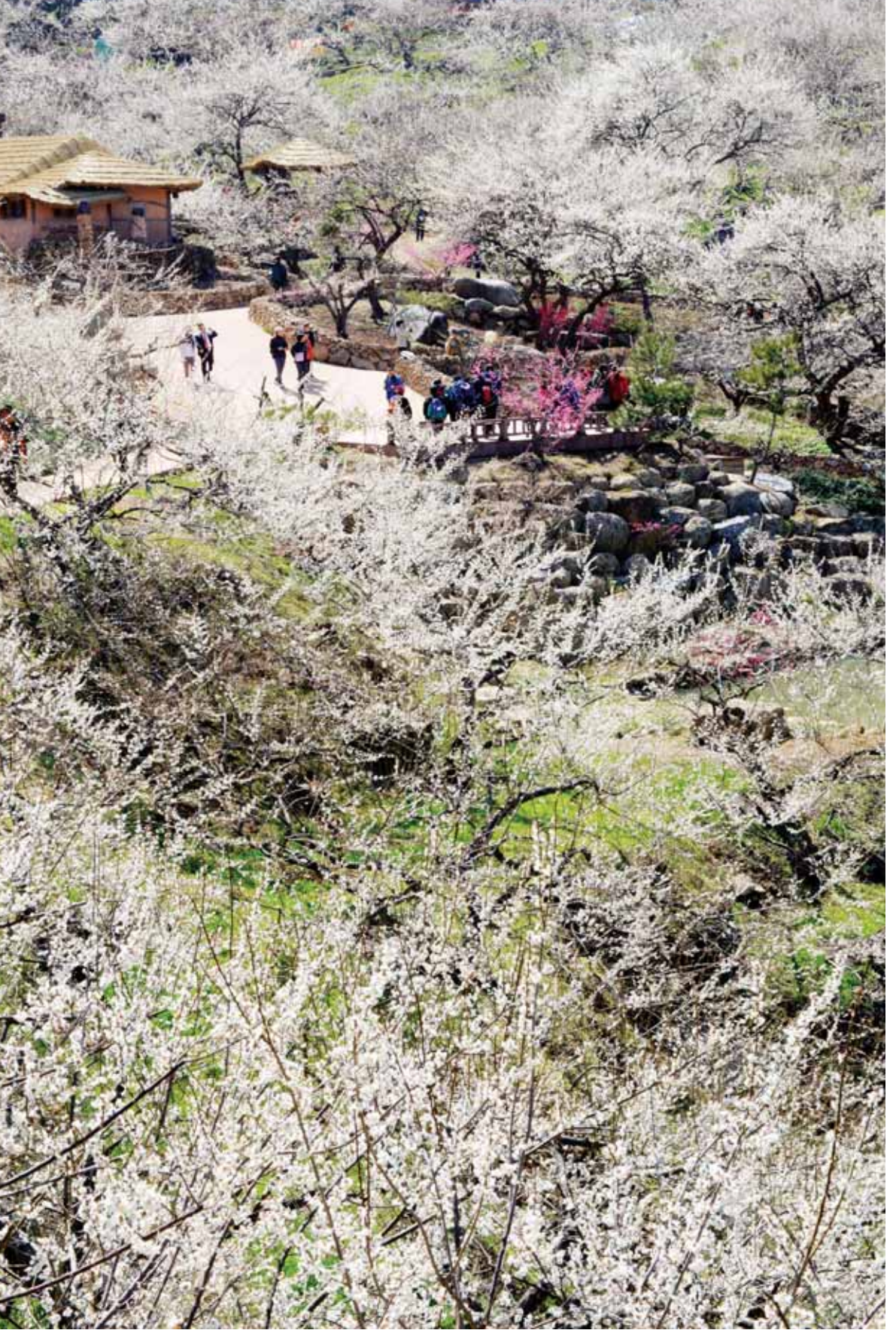
이 밖에 무안 C노인요양원 대표이사도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챙기는 수법으로 1억2000여만원을 챙기고, 3400만원을 들여 노인 식사 재료를 구매할 것으로 서류를 꾸며 2100만원을 부인 통장으로 빼돌렸다. 이런 수법으로 횡령한 1억4000여만원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횡령 과정에 도움을 준 부식 공급 업체는 대표이사의 처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법인들은 대부분 딸, 아내, 사돈, 처남 등 가족이나 지인들을 동원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고, 시설의 주요 보직도 친인척이 도맡아 비리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의 횡령 피해는 고스란히 노인 등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 가고 있다. 인건비를 빼돌리기 위해 서비스 인력을 줄이고, 노인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비위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남도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감독 부서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다 노인 시설의 경우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전남도 무안군에 횡령액을 모두 반납받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을 해임할 것을 통보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헌재소장에 공안 검사 출신 박한철 성접대 의혹 김학의 법무차관 사표

헌재재판관 조용호·서기석 중기청장 광주 출신 한정화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중인 새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60·인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58·충남)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60·경남)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관련기사 3면>

박 신임 헌재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특히, 박 신임 헌재소장은 인사청문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57)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4면>

김 차관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동안 건설업자 윤모씨가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고위층 인사라는 의혹을 받았

다. 경찰은 이와 관련, 김 차관을 성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의 성접대 수사가 급속도로 진척됨에 따라 김 차관은 조만간 직접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S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섬진강변 매화꽃 절정

꽃샘 추위 속에서도 21일 광양시 다압면 천매리 농원에 매화가 활짝 피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다음달 3일부터 9일간 광양에서는 남도의 봄 소식을 먼저 알리는 광양 국제매화 문화축제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함평해보농공단지 용지분양

1. 농공단지 개요
 •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57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13년
 • 조성 면적 : 245,430㎡ (산업시설 173,429㎡ 지원시설 1,788㎡ 공공용지 70,213㎡)
 • 준공 예정 : 2013. 9월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 함평군수

2. 분양대상

구분	단지구획	분양면적(㎡)	분양가격(예정가격)	비고
산업시설 용지	35블럭	173,429	270천원/3,3058㎡	· 건물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층 수 : 4층 이하

* 분양가격(단가)은 사업기간 동안의 자본비용을 반영한 추정 원가로서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 분양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연번	업종	산업분류 번호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73,429	100.0	
1	식품류 제조업	C10	9,724	5.6	
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30,389	17.5	
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3	29,358	16.9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업 제외)	C25	28,268	16.3	
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59,947	34.6	
6	기타제품 제조업	C33	15,743	9.1	

입지여건

· 도로 | 국도 22, 24호선 이용으로 수도권 물류 수송 용이, 광주 평동산단까지 15분
 · 항공 | 광주공항까지 25분 | 철도 | 송정역까지 20분 소요 | 항만 | 목포역까지 40분 소요
 · 지가 | 광주광역시 배후지역 중 지가가 가장 저렴

분양문의 함평에코플렉스 : 1577-6461 http://hampyeongheabo.com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 061-320-3294

사업시행자 함평군 분양사 함평 에코플렉스(주) (주)시오플래닝 시공사 (주)금강건설